

웅장하게 되살아난 불굴의 ‘아산 정신’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아산 정주영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음악회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지휘로 5세기에 달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드레스덴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기념음악회가 탄신일을 1주일 앞둔 11월 18일 저녁 8시부터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기념음악회에는 ‘아산 정주영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흥구 전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LS 회장, 이재후 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갑영 연세대 총장, 윤석민 SBS 부회장, 박노홍 연합뉴스 사장,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과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 대사 등 정·관·재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인

사와 외교사절 등 각계인사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그룹에서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일 현대기업금융회장, 정몽원 한라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창조적 사고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아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고, 정몽준 이사장은 공연 시작 전 로비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시련 극복한 설립자와 베토벤

음악회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지휘로 독일의 드레스덴 슈타츠크펠

레(Staatskapelle Dresden)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드레스덴 악단은 1548년에 창단, 467년의 전통을 간직해 ‘살아있는 서양음악사’로 불리는 명문 관현악단이다. 음색과 품격, 연주 스타일에서 독일의 관현악 전통을 대표하며, 2012년 악단 최초로 정명훈 감독을 수석객원지휘자로 영입했다. 정명훈 감독은 드레스덴 악단에 대해 “독일 레퍼토리에 맞는, 굵고 따뜻한 소리가 나오는 유일한 오케스트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연주곡목은 베토벤의 교향곡 ‘2번’과 ‘3번(영웅)’으로 설립자의 생애와 닮은 강인함과 웅장함이 표현됐다.

잘 알려진 대로 청력을 잃었으면서도 침묵의 세계 속에서 불



기념음악회의 여러 모습. 콘서트홀 1층 로비에서 실베스트르 쿠아시 빌레 코트디부아르 대사(가운데) 등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오른쪽 사진).

후의 명작들을 작곡한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은 1770년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궁정의 테너 가수였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거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던 베토벤은 천재형이라기보다 타고난 노력형이었다. 정규 학력은 설립자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졸업뿐이었다.

베토벤은 키가 작고 메마른 느낌이어서 귀족사회의 우아함과 는 거리가 멀었지만,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 빈의 귀족사회에서 환대받았고 귀족이나 부호의 딸과 계급을 초월한 사랑을 나눌 만큼 매력적인 인품의 소유자였다. 작곡한 작품이 잇달아 발표 되었으나 29세부터 시작된 난청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전혀 귀가 들리지 않게 되어 만년에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고독한 생활을 보냈다.

조국과 민족 잊지 않은 설립자

그의 창작 의욕은 병마에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심오함을 더해 낭만주의 음악의 문을 활짝 열었다. 1804년 이날 연주한 교향곡 제3번 ‘영웅’을 완성했고, 피아노 소나타 ‘열정’(1805), 교향곡 제5번 ‘운명’, 교향곡 제6번 ‘전원’(1808) 등의 명작이 잇따르며, 1809년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로 제2기의 명작 시대가 정점에 도달한다.

명성은 높아졌지만 귀가 들리지 않아 연주 활동은 불가능했으며, 일상의 대화조차 메모지가 필요했다. 보호자였던 귀족들도 몰락해서 물질적 궁핍이 심했다. 최후의 대작인 교향곡 제9번 ‘합창’(1824)은 이런 절망을 초인적 의지로 딛고 탄생했다. 베토벤은 1826년 말부터 복부의 격렬한 통증과 폐렴을 앓다가 이듬해인 1827년 3월 26일 56세로 생애를 마쳤다. 오늘날 악성(樂聖)으로 불리는 그의 음악은 운명에 대한 저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념음악회의 1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2번(원제 Symphony No.2 in D major Op.36)이 연주됐다. 1801년~1802년에 작곡된 2번 교향곡은 컷병이 악화되던 절망의 시기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베토벤의 대표작 중 하나다. 약 35분간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연주되면서 음악회 초반의 축하 분위기를 조성했다.

2부의 선곡은 교향곡 3번 ‘영웅’(원제 Symphony No.3 in E-flat major, 부제 ‘에로이카-한 위대한 인물을 기리며’)이었다. 1804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장대하고 강렬하며, 교향곡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곡으로 일컬어진다.

50여분 동안의 웅장하고 장엄한 연주를 통해 음악회 참석자들은 시련을 극복하고 지치지 않는 새로운 도전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설립자의 영웅적인 삶과 의지를 되돌아보았다. 설립자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몸을 일으켜 굴지의 기업가가 되었으면서도 평생 소박하게 살며 조국과 민족을 잊지 않은 설립자를 회고했다.

“15년째 이 악단과 호흡을 맞춰 왔는데 오늘 연주는 정말 좋았다. 특별한 날에 지휘를 맡아 의미가 깊다.”

정명훈 지휘자가 ‘영웅’ 연주를 끝낸 뒤 말했다. 객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앙코르 곡은 베토벤 교향곡 7번 4악장(Allegro con brio)이었다. 설립자의 열정적인 추진력처럼 빠르고 힘이 넘치는 연주였다.

설립자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음악회는 울산에서도 열렸다. 설립자 탄신일인 11월 25일 울산 현대예술관에서는 KBS 교향악단이 베토벤의 서곡 ‘에그몬트’와 피아노 협주곡 ‘황제’, 교향곡 ‘운명’ 등을 연주하며 설립자의 탄신을 기념했다. 🎻